

시간의 창조: 플라톤과 아우구스티누스¹⁾

이 경 직²⁾

I.

대부분의 중세 사상가에게 플라톤 철학 가운데 관심을 끈 것은 『티마이오스』(Timaios)편에 나타난 자연 철학과 우주론이었다. 플라톤 이전에는 어떤 그리스인도 세계를 만든 신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후 기독교인들이 플라톤을 성경에 계시된 진리에 가장 가깝게 접근한 이교도의 지혜자로 여긴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³⁾ 9세기에 존 스코투스 에리우게나(John Scottus Eriugena)가 『티마이오스』편을 정독했으며, 10-11세기 학자들은 보에티우스(A. Boethius)의 『철학의 위안』(De Consolatione Philosophiae)(III, 9)에 철학적으로 영향을 끼친 사람이 플라톤이라는 사실을 『티마이오스』편을 통해 알게 되어, 『철학의 위안』이 기독교적 플라톤주의자가 쓴 글인지, 아니면 그냥 플라톤주의자가 쓴 글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생겨나게 되었다. 12세기 초엽에 북프랑스에서 플라톤주의 신학자들이 플라톤의 우주론과 「창세기」의 교리를 모순 없이 연결하고자 시도했던 것도 이러한 맥락 속에 들어 있다. (대부분 출판되지 않았지만) 그들은 『티마이오스』편에 대해 방대한 주석을 붙이는 작업을 했다.⁴⁾

1) 이 글은 2000년 9월 천안대학교 대학원에서 열린 한국 기독교철학회에서 발표한 원고의 일부를 수정 보완한 글이다. 훌륭한 논평을 주신 여러분께, 특히 최태연 교수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드린다.

2) 천안대, 기독교철학 전공

3) C. F. v. 바이츠제커, 『과학의 한계. 창조와 우주 생성, 두 개념의 역사』(서울: 민음사, 1996), 101-102쪽.

4) J. Hankins, "Plato in the Middle Ages", in: J. R. Strayer (ed.), *Dictionary of*

II.

구약 성경의 세계 창조를 설명할 때, 아우구스티누스(Augustinus)는 『티마이오스』편에 나타난 데미우르고스의 세계 제작을 염두에 두는 것 같다. 특히 시간의 창조에 관한 설명은 겉보기에 플라톤의 우주 생성론에 나타난 설명과 매우 비슷해 보인다. 따라서 둘을 비교하는 일은 기독교의 세계 창조에 대한 아우구스티누스의 생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

아우구스티누스에 따르면, 하나님은 태초에 세계를 무로부터(ex nihilo) 창조하셨다. '태초'(arché)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arché는 원래 시간의 시작을 나타내었는데, 모든 것의 시작이 결국 근원이 된다는 의미에서 '원리'(principium)라는 뜻을 지니게 되었다. 이는 arché의 반대어로 쓰이는 telos라는 단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처음에는 끝 또는 종말을 뜻했던 단어가 완성 또는 목적이라는 뜻으로 쓰여진다. 이러한 단어 사용의 모델은 생물이었던 것 같다. 발아 상태의 씨앗이 시간상 시작이면서 동시에 이후 성장할 생물의 유전자 정보를 모두 지닌 원형(原形)이며, 다 성장한 생물이 시간상 끝이면서 동시에 완성된 상태이다. 다 자라난 사람을 성인(成人), 즉 사람으로 된 자라고 부르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태초'를 시간상의 시작으로 여기게 되면 문제가 생겨난다. 만일 '태초'가 시간 속에 들어갈 수 있다면, 하나님의 창조 활동은 시간의 제약을 받게 된다. 또한 태초의 창조 때부터 종말까지의 시간은 영원에 비하면 한 점에 불과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시점 이전에 영원한 시간 동안 무엇을 하고 계셨는가 라는 물음이 나타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원한 시간 동안 부족함 없이 지내셨다면, 굳

이 인간과 세계를 창조하실 이유가 없으셨을 것이다. 만일 인간과 세계를 창조하셔야만 했다면,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인가 부족한 상태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한 경우 세계의 창조 이전에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 아니셨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의 신비에 속하는 일에 대해 캐묻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지옥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대답했다. 장 칼뱅도 이러한 대답을 따랐다.⁵⁾ 그런데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점을 드러냄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아우구스티누스에 따르면, 하나님의 창조 행위는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에게는 시간 개념을 적용할 수 없다.⁶⁾ 하나님은 세계와 함께 시간도 창조하셨다.⁷⁾ 사물들 사이의 변화를 측정하는 척도가 시간이기 때문에, 사물들의 창조가 없는 시간도 있을 수 없다.⁸⁾ 이러한 생각 때문에 그는 창세기의 육일을 태양의 회전이 정해주는 문자적 날짜와는 다른 방식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여겼다. 그에 따르면, 육일의 이야기는 동시에 전체적으로 발생한 일을 극적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동시에 한꺼번에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창세기 기자는 “먼저 창조를 전체적으로 제시한 후에, 그 부분들을 신화적 의미의 날짜수에 따라 순차적으로 묘사한다.”⁹⁾

아우구스티누스는 영원과 시간을 다른 차원에서 이해한다. 그에 따르면, 영원성은 시간이 무한히 연장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상 세계보다 앞서지 않고 그분의 영원성으로 인해 앞선다. 그러한 경우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시간 속에서 변화하는 존재자와 어떻게 실

5) John Calvin, *Institutes*, 1, XIV, 1, *Commentary on Genesis* (Edinburgh, 1847), 61쪽. 윌리엄 크리스찬, “세계 창조”, 로이 배튼하우스 편, 『아우구스티누스 연구 핸드북』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4), 377쪽에서 재인용.

6) C. F. v. 바이츠제커, *op. cit.*, 120-121쪽.

7) 아우구스티누스, 『신곡론』, IX, 6.

8) 윌리엄 크리스찬, *op. cit.*, 375-376쪽.

9) 아우구스티누스, 『신의 도성』 XI, 33; CSEL 401, 564. 윌리엄 크리스찬, *op. cit.*, 377쪽에서 재인용.

제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가 신비로 남게 된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불변하시다면 시간 속에서 새로운 것이 나타나는 역사란 없다”는 명제는 참되지 못하다. 이 명제에 따르면, “하나님은 불변하시며 시간 속에 새로운 것이 나타나는 역사란 없다”는 명제가 참이거나, 아니면 대우 명제인 “시간 속에서 새로운 것이 나타나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변하시지 않는다”가 참이어야 한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이 불변하시지만 역사 역시 실제로 있다”고 주장한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계와 더불어 시간도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III.

기독교의 세계 창조와 플라톤의 세계 제작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무엇보다도 기독교에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데 반해, 플라톤의 세계 제작자 데미우르고스(Demiourgos)는 혼돈스러운 물질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질서를 만들어내는 자이다. 혼돈스러운 물질은 데미우르고스에게 그저 주어진 것(datum)이다. 이는 필연(ananké)으로도 표현되는데, 이 개념을 기계론적 법칙성을 뜻하는 근대적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안 된다. 플라톤이 생각하는 필연은 데미우르고스의 세계 제작에 필수적인(anankaion) 것이며, 이성의 법칙에 의해 파악될 수 없어 이성이 ‘어찌할 수 없는’ 것이다. 필연을 근세적 개념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플라톤의 의도와는 달리 필연을 이데아와 연결해서 이해하는 결과를 낳는다. 필연성은 이성이 예측할 수 없는 것이며, 세계 안에서 예측할 수 있는 요소는 이성의 작품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따라서 플라톤에 따르면, 세계는 이데아에 참여(metechein)한 만큼만 완전하며, 필연성이 작용하는 만큼이나 완전하지 못하다.¹⁰⁾ 따라서 세계 속에 나타나는 악의 존재에 대해 데미우르고스는 책임지지 않는다. 악의 원인은 필연성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플라톤은 신정론(theodiké)을

10) C. F. v. 바이츠제커, *op. cit.*, 104-105쪽.

제시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이에 반해 기독교의 하나님은 세계를 무로부터(*ex nihilo*) 창조해내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신정론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아우구스티누스는 시간 창조에 관해 논의하면서 플라톤의 시간 제작론을 염두에 두는 것 같다. 플라톤도 『티마이오스』편에서 시간이 천구를 포함한 우주와 함께 생겨났다고 밝히기 때문이다(Tim. 38b).¹¹⁾ 실제로 신플라톤주의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던 아우구스티누스는 창세기의 구절을 읽으면서 플라톤의 『티마이오스』편에 나타난 시간 제작 구절이 이와 비슷하다고 여겼을 것이다.

그런데 그의 시간 창조 설명을 살펴보면, 서로 조화될 수 없는 두 가지 요소가 서로 섞여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는 창조의 문자적 해석과 은유적 해석이다.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시간과 더불어 세계를 창조하셨다는 주장에서는 문자적 해석이 나타난다. 또 다른 한편으로, 아우구스티누스는 ‘태초’가 시간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창조가 이루어진 6일을 실제로 흘러간 시간으로 여기지 않고 이해를 돕기 위한 신화적 설명으로 여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라는 표현까지도 인간의 관점에서 나오는 표현이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오는 표현이 아니라는 것이다.¹²⁾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시간과 더불어 세계를 창조하셨다고 주장할 때, 플라톤의 『티마이오스』편에 나타나는 우주 생성론을, 특히 데미우르고스의 시간 제작을 문자적인 의미로 받아들였던 것 같다. 이 글에서는 『티마이오스』편의 우주 설명을 세계가 시간상 시작된 과정을 설명하는 우주생성론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불변하는 세계 안의 질서를 설명하는 우주론으로 받아들이는 편이 옳다는 사실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통해 아우구스티누스가 해결하지 못해서 신비로 돌려버린 문제, 즉 변화하는 시간과 불변하는 영원의 관계 사이에 생기는 문제가 플라톤에게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

11) *ibid.*, 374-375쪽.

12) C. F. v. 바이츠제커, *op. cit.*, 121쪽.

다. 『티마이오스』편의 우주 설명에 나타난 이원론은 존재론적 이원론이기보다 인식론적 이원론이라는 점도 아울러 드러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점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신화적 해석과 맥락을 같이 한다는 사실도 지적하고자 한다. 결론을 미리 말하자면, 아우구스티누스는 플라톤의 우주생성론을 문자적으로 이해함으로써 하나님의 영원성을 보장하려고 했지만, 이로 인해 6일이라는 시간을 단지 효과적인 설명을 위한 신화적 도구로 이해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IV.

우선 플라톤의 우주 설명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아니면 은유적으로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플라톤 연구가들은 『티마이오스』편에 나타난 우주생성론이 은유 또는 허구인지 아니면 문자 그대로 사실인가라는 물음을 둘러싸고 서로 생각을 달리한다. 이 물음은 『티마이오스』편에서 실제로 있는 이 세계가 생성된 과정이 설명되는가, 라는 물음이기도 하다. 이미 고대에 세계의 시작이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다.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와 플루타르코스(Ploutarchos)가 플라톤의 우주생성론을 문자적으로 해석한 반면에, 그 밖의 모든 고대 학자는, 예를 들어 크세노크라테스(Xenokrates)와 크란토르(Krantor), 프로클로스(Proklos) 등은 이러한 해석에 반대했다. 그런데 이러한 물음에 해답을 줄 수 있는 단서는 플라톤의 자연 철학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놓여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물음에 대한 답변은 플라톤의 우주론을 이루는 구체적 내용을 설명하는 것과 연결해서도 주어져야 한다.¹³⁾ 그런데 고대나 지금이나 플라톤의 우주 생성론을 은유적으로 해석하는 입장이 우위

13) M. Baltes, "Gégonen (Platon. Tim. 28B7): Ist die Welt real entstanden oder nicht?", in: K. A. Algra/P. W. van der Horst/D. T. Runia (ed.), *Polyhistor: Studies in the History and Historiography of Ancient Philosophy* (Leiden, 1996), 76-94쪽 참조.

를 차지했다.¹⁴⁾

그러나 플라톤의 우주 생성론을 은유적으로 해석하지 않으려는 시도도 있다. 은유적 해석을 받아들이는 경우, 예를 들어 『티마이오스』편에 나타난 플라톤의 운동 이론은 『파이드로스』(Phaidros)편의 운동 이론이나 『법률』(Nomoi)편의 운동 이론과 어울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티마이오스』편은 『파이드로스』편과 『법률』편 사이에 쓰여진 대화편이다.) 『파이드로스』편에 나타난 운동 이론에 따르면, 모든 운동의 원인은 영혼이다. 『법률』편의 운동 이론도 그러하다.¹⁵⁾ 그러나 『티마이오스』편에 나타난 플라톤의 운동 이론에 따르면, 영혼을 운동 원인으로 삼지 않는 혼돈스러운 운동이 있다.¹⁶⁾ 우리가 『티마이오스』편에 나타난 플라톤의 우주생성론을 은유적으로 받아들이는 대신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플라톤이 혼돈스러운 운동을 전제한 것은 우주 이전의 상태를 설명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그러한 경우, 『파이드로스』편과 『법률』편에 나타난 운동 이론은 세계 제작 이후에 존재하는 우주의 상태에 맞는 이론이 된다.¹⁷⁾

이 문제를 다룬 연구사의 성과에 따르면, 플라톤의 자연 철학을 전체적으로 해석할 때에야 비로소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제대로 답변할 수 있다. 하나의 해석을 다른 해석보다 낫다고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은 그 해석이 『티마이오스』편에 나타난 세계 설명 전체와 더 일치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이야기이다. 이러한 기준을 사용하는 예를 한 가지 들어보자. 루니아(Runia)는 『티마이오스』편에 나타난 세계 설명이 우주론이 아니라 우주생성론이라고 주장한다. 『티마이오스』편의 서론에

14) L. Taran, "The Creation Myth in Plato's Timaeus", in: J. P. Anton/G. L. Kustas (ed.), *Essays in Ancient Greek Philosophy* (Albany, 1971), 372-407쪽 참조.

15) C. J. Rowe, *Plato* (Sussex, 1984), 189쪽.

16) M. Meldrum, "Plato and the Archê Kakôn". *Journal of Hellenic Studies* 70 (1950), 66면; S.-M. Nikolaou, *Die Atomlehre Demokrits und Platons Timaios* (Stuttgart/Leipzig, 1998), 184쪽, 200쪽 참조.

17) A. Vallejo, "No, It's Not a Fiction", in: T. Calvo/L. Brisson (ed.), *Interpreting the Timaeus-Critias* (Sankt Augustin, 1997), 146쪽 참조.

나타난 논리적 또는 철학적 설명과 『티마이오스』편의 나머지 부분에서 그럴듯한 설명으로서 제시되는 자연과학적 설명을 서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 그가 제시하는 이유이다.¹⁸⁾ 물론 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티마이오스』편의 서론 이외의 부분에서도 플라톤은 철학적이고 엄밀한 설명을 많이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¹⁹⁾

이 글은 플라톤의 우주 생성론을 은유적 설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다. 가다머(Gadamer)처럼 『티마이오스』편 1부를 우주 생성론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시도도 실패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가다머는 『티마이오스』편 서두(27d-29d)를 두 부분으로 나눔으로써 플라톤의 자연 철학을 해석하기 시작한다. 그에 따르면, 서두에서 순수 생성에 관한 부분과 일회적 생성에 관한 부분이 나누어진다. 첫 부분에서(Tim. 27d-28a) 플라톤이 존재와 생성을 엄격하게 구분하는데 반해, 이러한 생성 개념 뒤에 또 다른 생성 개념이 따라온다고 그는 주장한다. 모든 생성물이 어떤 원인에 의해 생성된다고 플라톤이 말할 때, 이 구절에서는 '생성'이라는 표현을 앞에서와 다른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가다머는 (그럴듯한 설명으로 번역되는) *eikōs logos*와 (그럴듯한 이야기로 번역되는) *eikōs mythos*를 각기 우주론과 우주생성론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이해하면서, 언제나 일어나는 순수 생성을 다루는 2부가 우주론인데 반해, 데미우르고스가 단 한 번에 만들어내는 생성을 다루는 1부는 우주생성론이라고 주장한다. 『티마이오스』편 1부에서 데미우르고스를 나타내는 비유 '아버지'가 2부에서는 이데아를 나타내는 데 사용된 점을 고려해보는다면, 2부에서 이데아가 데미우르고스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²⁰⁾

이와 관련하여 가다머는 데미우르고스가 2부에 나오는 기하학적 원소

-
- 18) D. T. Runia, "The Literary and Philosophical Status of Timaeus' Prooemium", in: T. Calvo/L. Brisson (ed.), *op. cit.*, 115쪽.
 19) G. Vlastos, "The Role of Observation in Plato's Conception of Astronomy", in: G. Vlastos, *Studies in Greek Philosophy* (Princeton, 1995), 234쪽 주 45 참조.
 20) R. D. Mohr, *The Platonic Cosmology* (Leiden, 1985), 108-109쪽; M. L. Gill, "Matter and Flux in Plato's Timaeus", *Phronesis* 32 (1987), 38-39쪽 참조.

구성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려고 한다.²¹⁾ 그의 생각에 따르면, 2부에서는 데미우르고스가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다. 가다머는 예를 들어 (데미우르고스의 개입 이전의 영역으로 표현되는) 필연의 영역에서 기하학적 질서가 이미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때, 필연을 기계론적 법칙에 나타나는 필연으로 이해해야 한다. 수많은 종류의 삼각형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즉, 가장 단순하고 응용도가 높은) 원(原)삼각형이 선택되는 것은 혼란스러운 무질서가 가능한 한 잘 설득되는 일인데(Tim 54a), 가다머는 이러한 선택에 데미우르고스가 관여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그는 데미우르고스의 활동 가운데 가장 중요한 활동인 ‘설득’(peithô, Tim 48a)이 데미우르고스가 없이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여겨야 한다.²²⁾ 또한 가다머는 필연에 나름대로 질서를 보인다는 점을 강조하기는 하지만,²³⁾ 플라톤이 왜 필연을 ‘방황하는’ 원인으로 표현하는지는 설명하지 못한다. 가다머의 생각에 따르면, 필연은 미리 구조화되어 있으며 그래서 언제나 세계 구성에 적합한 재료이기 때문이다. 그러하다면, 최대한 애를 쓰지만 성공적이지도 못하고 완전하지도 못한 설득은 필요 없게 될 것이다.²⁴⁾ 이는 플라톤의 설명과 맞지 않다. 또한 데미우르고스가 (가다머가 데미우르고스의 활동과 무관하다고 여긴) 기하학적 원소를 구성하는 일에 실제로 참여한다는 점을 밝혀주는 구절이 하나 있다(Tim 60b-c). 데미우르고스는 (아직 구성되지 않은) 모든 원소에 먼저 질서를 잡아 주고, 그 다음에 그러한 원소로부터 우주를 구성한다. 이 우주는 유기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하나를 이루는 생물이다.

위의 논의를 고려해 볼 때, 우리는 플라톤의 자연 설명을 우주생성

21) H.-G. Gadamer, *op. cit.*, 22쪽. R. D. Mohr, *op. cit.*, 110-112쪽도 그러하다.

22) K. Alt, “Die Überredung der Ananke zur Erklärung der sichtbaren Welt in Platons *Timaios*”, *Hermes* 106 (1978), 466쪽 참조.

23) 가다머는 기하학적 4원소 설명을 현대적 의미의 이론으로 받아들인다: H.-G. Gadamer, *op. cit.*, 27면. 이를 반대하는 J. Mittelstraß, *Die Rettung der Phänomene* (Berlin, 1962), 100-101쪽, 101쪽 148 참조.

24) J. E. Moncada, *Chora und Chronos. Logos und Ananke in der Elemententheorie von Platons Timaios* (Wuppertal, 1994), 84쪽 S. Sharafat, *Elemente von Platons Anthropologie in den Nomoi* (Frankfurt/M., 1997), 38-39쪽

론이 아닌 우주론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는 『티마이오스』편에 나타난 플라톤의 운동 이론이 『파이드로스』편과 『법률』편에 나타난 운동 이론과 다르다는 것을 뜻한다.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 『티마이오스』편의 운동 설명과 『법률』편의 운동 설명은 서로 다른 문맥에 속하는 것 같기 때문이다. 『티마이오스』편에 나타난 운동 설명은 자연철학적인 설명인데 반해, 『법률』편에 나타난 운동 설명은 신학적인 설명이기 때문이다.²⁵⁾

V.

따라서 우리는 아우구스티누스가 창세기의 시간 창조를 이해할 때 고려했던 이론은 플라톤의 우주론 자체가 아니라, 플라톤의 우주 설명을 우주생성론으로 이해한 아리스토텔레스 등의 해석이라고 여겨야 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동의하지 않겠지만, 그나 플라톤 모두 세계의 불변성을 받아들인다. 세계 안에서 장소 이동이나 질적 변화 등은 있을 수 있지만, 세계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 현대의 에너지 법칙에 빗대어 말하자면, 세계 안에 변화와 운동은 있지만, 총에너지는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세계는 언제나 존재했으며 언제나 존재하며 언제나 존재할 것이다. 따라서 세계는 어떤 시점에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렇다면 왜 플라톤은 우주생성론의 형식을 빌어 자연을 설명하는가? 그 원인은 설명을 듣는 사람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해시키려는 교육적 목적에 있다. 복잡한 기하학의 구조를 작도를 통해 학생들에게 순차적으로 보여줌으로써 기하학적 구조를 좀더 분명하게 이해시키는 것처럼, 무시간적 세계의 형태를 시간적 순서로 설명하기 위해서이다. 이는 플라톤이 『국가』편에서 이상 국가의 구조를 설명할 때 국가를

25) C. Rowe, *op. cit.*, 191-192쪽 조.

세워나가는 과정을 통해 설명한 것과 같다.

이는 『티마이오스』편 서두에서 크리티아스(Kritias)가 고대 아테네의 역사를 이야기하겠다고 밝힐 때에도 잘 나타난다. 크리티아스는 소크라테스가 『국가』(Politeia)편에 나오는 대화 상대자들에게 mythos 형태로 이상 국가를 설명한 반면에, 그 자신은 설명을 진리로, 즉 사실로 옮겨놓고자 한다는 점을 힘주어 말한다.²⁶⁾ mythos에서는 가상의 시민과 국가가 설명되는 반면에,²⁷⁾ 크리티아스의 설명은 실제로 있던 시민과 국가에 대한 보고라는 점이 강조된다(Tim. 26c-d). 이는 소크라테스가 『국가』편에서 이상 국가를 세워나갈 때 실제로 있었거나 있는 국가를 세운 과정을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세워져야 마땅한 국가를 위한 설계도를 그리고 있음을 잘 나타낸다. 하지만 그 설명을 듣는 사람들에게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는 ‘마치 시공간에 실제로 있는 국가를 건설해나가는 것처럼’ 시간적 순서에 따라 설명을 할 수밖에 없다. 논리적 순서가 설명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시간적 순서의 형태를 지닐 수밖에 없다. 시간상의 시작을 나타냈던 arché가 추상화될 때 논리적 기초 또는 원리가 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티마이오스의 설명은 크리티아스의 설명과 같은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도리어 그와 반대이다. 물론 티마이오스가 그의 자연 철학을 우주론의 형식 대신 우주 생성론의 형식을 빌어, 즉 공간과 시간 속에서 일어난 특정 사건에 관해 이야기하는 방식을 빌어 제시하고자 하는 이유를 크리티아스의 언급 속에서 찾아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²⁸⁾ 대화편 구성을 고려해볼 때, 시공간 속에 일어난 역사를 기술하는 크리티아스의 설명이 티마이오스의 설명을 앞뒤로 감싸고 있기 때문이다. 『크리티아스』편은 『티마이오스』편과는 별도의 제목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두 대화편은 구성 면에서나 내용 면에서 긴밀하며 따라서 서로 연결해서 이해되어야 하는 작품이다. 『크리티아스』편에서 비교적 자세하게 언급되는 이야기가

26) 이와 관련하여 크리티아스는 그의 이야기가 참되다고 힘주어 말한다: Tim. 20d, 21d, 22d, 22e, 25a, 26d, Krit. 110d.

27) J. Mittelstraß, *op. cit.*, 111-112쪽 참조.

28) C. Calame, *Mythe et Histoire dans l'Antiquité Grecque. La Création Symbolique d'une Colonie* (Nadir, 1996), 166-169쪽.

『티마이오스』편 서두에서 요약 형태로 소개되고 있으며, 티마이오스의 우주생성론은 고대 아테네에 관한 『크리티아스』편의 설명을 하기 위해 먼저 다루어야 하는 이야기로서 제시되기 때문이다. 『국가』편의 이상국가에 적합한 철인(哲人) 왕이 있기 위해서는 먼저 사람의 생성에 관해 논의해야 하며, 따라서 사람의 생성을 설명하려면 세계 전체의 생성을 설명해야 하는데, 이는 천문학자 티마이오스가 크리티아스에 앞서 담당해야 할 과제로 제시된다. 또한 『티마이오스』편에서 세계 제작자 데미우르고스가 세계 전체와 항성들을 만든 후, 자신의 자식들로 표현되는 항성 신들에게 나머지 부류의 종(種)들을 만드는 법을 가르치는 연설을 하는 장면과 『크리티아스』편 말미에서 모든 신의 왕인 제우스(Zeus)가 올림포스(Olympos) 산 위에서 모든 신들을 모아 놓고 연설을 하려는 장면은 문학적으로 서로 연결되도록 만들어 놓은 장면이다. 『티마이오스』편 서두에서 소크라테스가 『국가편』에서 이상 국가에 관해 했던 논의를 요약한 후에, 이상국가가 현실에 실제로 적용되어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는 과제가 크리티아스와 헤르모크라테스(Hermokrates), 그리고 티마이오스에게 있다고 밝힌다. 그래서 세 사람 모두 시공간 속에서 이루어진 구체적인 역사를 설명하는 형식을 취할 수밖에 없는 것 같다. (원래 기획되었던 3부작 가운데 『크리티아스』편은 미완성으로 끝나고, 『헤르모크라테스』편은 전혀 쓰여지지 않았다. 만일 『헤르모크라테스』편이 쓰여졌다면 시공간 속에 이루어진 역사의 형식을 빌어 쓰여졌을 것이다.)

그런데 소크라테스도 크리티아스의 주장에 동의한다. 그도 크리티아스의 이야기가 생각해낸 것이 아니라 실제 있었던 역사에 대한 참된 이야기라고 밝힌다(Tim 26e).²⁹⁾ 크리티아스가 비록 ‘우리’라는 표현을 통해 시공간 속에 일어난 역사적 사건을 기술하는 일이 자신과 티마이오스의 일인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그와 동시에 크리티아스의 설명과 티마이오스의 설명이 서로 다른 점도 강조한다. 이와 관련해서 크리티아스는 티마이오스에 의해 인간이 ‘설명 속에서’(en tō logō) 생

29) J.-F. Pradeau, *Le Monde de la Politique* (Sankt Augustin, 1997), 25쪽 주36 참조.

생되었다고 말한다(Tim 27a). 티마이오스 자신도 『티마이오스』편 2부에서 구성된 원소의 정다면체가 '설명 속에서' 생성된 종(種)이라고 말한다(Tim 55d Tim 56b도 참조).³⁰⁾ 『크리티아스』편 첫머리에서 크리티아스의 설명을 시작할 때 티마이오스의 '설명 속에서' 생성된 신들의 이름이 불린다(Krit. 106a). 따라서 『티마이오스』편에 나타난 세계와 인간의 생성에 관한 이야기가 사물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로고스의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데 크리티아스와 티마이오스가 서로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³¹⁾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소크라테스의 동의도 가상의 역사와 사실의 역사가 티마이오스의 설명에서 큰 역할을 한다는 점을 암시해준다.³²⁾ 따라서 『티마이오스』편의 자연 설명은 우주생성론이 아니라 우주론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물론 아우구스티누스는 신플라톤주의자가 『티마이오스』편의 자연 설명을 우주론으로 여겼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³³⁾

그런데 플라톤의 우주론을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우주생성론으로 여기는 경우 다음과 같은 물음이 생겨난다. 제작자 신이 우주를 제작하기 이전의 상태는 어떠한 상태인가? 이러한 물음은 아우구스티누스에게서는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 창조 이전에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셨는가? 두 질문에서 또 다른 문제가 나온다. 시간이 세계와 함께 만들어졌는데도(Tim 38b) 세계가 생기기 이전에 시간적으로 어떤 상태가 있을 수 있는가? 플라톤의 경우, 이에 대해 세계가 생기기 이전에 시간이 선후(先後)만 분명하게 나타나는 지속(duration)의 형태로 있었다고 대답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³⁴⁾ 그러한 경우, 세계가 생긴

30) P. Shorey, "Recent Interpretations of the Timaeus", *Classical Philology* 23 (1928), 357쪽 참조.

31) W. Wieland, *Die aristotelische Physik* (Göttingen, 1961), 193쪽.

32) A. Arrighetti, "Plato between Myth, Poetry and History", in: S. Jäkel (ed.), *Power and Spirit* (Turku, 1993), 51-56쪽 참조.

33) 아우구스티누스, 『신국론』 11권. 윌리엄 크리스찬, *op. cit.*, 383쪽 참조.

34) 예를 들어 H. Herter, "Bewegung der Materie bei Platon", *Rheinisches Museum für Philologie* 100 (1957), 340-344쪽; G. Vlastos, "Disorderly Motion in the Timaeus", in: R. E. Allen (ed.), *Studies in Plato's Metaphysics* (London, 1965), 390쪽 참조.

이후의 시간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모어(Mohr)는 세계가 생긴 이후의 시간을 항성이라는 척도가 들어간 시간으로 이해한다. 그에 따르면, 데미우르고스가 세계와 더불어 시간을 제작했다는 뜻은 시간의 척도 역할을 하는 항성을 만들었다는 뜻이다. 시간을 제작했다는 것은 말하자면 상대적 선후만이 아니라 절대적 시간을 짚 수 있는 절대적 척도인 시계를 제작했다는 뜻이라고 한다.³⁵⁾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데미우르고스의 우주 제작은 순수한 재료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거나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작업이 아니라, 흠이 있는 물건을 흠을 없애고 질서를 부여해서 완전하게 만드는 작업이다. 우주를 제작하기 이전의 상태에 나타나는 혼돈(chaos)에 질서를 부여해서 질서 있는 우주를 만들어내는 데미우르고스의 작업은 무질서한 배열에 놓일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정입체 입자들을 고쳐서 완전한 정입체 입자들로 만드는 작업이 된다. 모어는 이러한 생각을 시간에도 똑같이 적용한다. 그에 따르면, 플라톤의 데미우르고스는 절대적 척도인 항성 시계를 만듦으로써 상대적인 선후관계만 드러나는 지속을 절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든다. 이러한 해석을 받아들인다면, 플라톤의 데미우르고스의 작업은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 된다.

그런데 플라톤의 데미우르고스는 필연이 지배하는 무질서를 완전히 극복하지 못하는 신으로서 하나님과는 달리 전능하지 못하다. 플라톤의 데미우르고스가 세계 제작 이전에 무한한 지속의 시간 동안 있었다 해도, 그가 왜 굳이 어떤 시점에 세계를 만들었느냐는 물음이 치명적이지 않다. 비록 그에게 선의지(善意志)가 있지만, 그는 그러한 선의지를 완전하게 실현할 만큼 완전하고 전능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의 제작 행위가 시간 속에 있다 해도 그리 문제되지 않아 보인다. 이와는 반대로 기독교의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위의 물음은 그리 쉽게 답할 성질의 것이 되지 못한다. 만일 하나님께서 세계를

35) R. D. Mohr, *op. cit.*, 56-61쪽, 67-70쪽 참조.

창조하신 후에 이를 좋다고 여기셨다면, 세상을 만드시기 전의 상태는 좋지 않은 상태이었을 것이 아니냐는 질문이 들어오기 때문이다. 이는 영원히 보존되는 하나님의 완전성에 흠집을 내는 것처럼 보인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문자적 의미로 해석된 플라톤의 우주생성론과는 달리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시간 속에 두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불변성과 완전성을 확보하려 한 것 같다.³⁶⁾ 하지만 이를 통해 그는 『창세기』에 기록된 6일간의 창조 활동을 ‘단 한 번에 완전하게’, 하지만 시간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진 활동으로 여겨야 했으며, 따라서 신화적 의미로 해석된 플라톤의 우주론처럼 『창세기』에 나타난 6일간의 창조 활동을 단지 효과적인 설명을 위한 신화적 표현으로 이해해야만 했던 것 같다.

VI.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창세기』의 세계 창조에서 ‘태초에’라는 표현을 시간적 표현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시간도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또한 그는 ‘태초에’를 시간적 표현으로 받아들이는 경우 하나님의 불변성 또는 영원성에 흠이 간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시간 창조를 설명할 때 『티마이오스』편에 나타난 플라톤의 우주생성론을 문자적 의미로 이해하고, 시간 창조를 절대적 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항성들의 창조로 이해하였던 것 같다. 플라톤의 우주론을 문자적 의미로 받아들이는 해석가들에 따르는 경우, 항성들의 제작 이전에도 상대적 선후 관계를 측정할 수 있는 지속의 형태로 시간이 존재하며, 이러한 상태가 혼돈으로 표현된다. 이러한 경우 데미우르고스의 세계 제작 행위는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행위가 된다. 주어진(*datum*) 혼돈에 의

36) 윌리엄 크리스찬, *op. cit.*, 384쪽.

해 제약을 받는 데미우르고스와는 달리 전능한 창조주 하나님은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으셔야 한다. 따라서 하나님은 기존의 물질로부터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무로부터(ex nihilo) 만물을 창조하신다. 따라서 하나님은 지속의 형태로 이미 존재하는 시간에 절대적 척도를 부여하신 것이 아니라 무로부터 시간을 창조하신다. ‘태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시간 창조는 시간 속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다.

이러한 결론은 「창세기」에 나오는 6일간의 창조 활동을 설명을 돕기 위한 교육(didake)의 목적으로 고안된 신화로 여기는 결과를 낳는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점에서는 데미우르고스의 제작 행위를 은유적으로 이해하는 입장을 따르는 것 같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플라톤의 우주론 등을 고려하면서 「창세기」의 창조 사건을 설명해보고자 하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시도는 기독교 신앙에서 철학 또는 학문의 유용성과 한계를 동시에 보여주는 것 같다.

참고 문헌

- 바이츠제커, C. F. v., 『과학의 한계. 창조와 우주 생성, 두 개념의 역사』 (서울: 민음사, 1996)
- 아우구스티누스 『신국론』
- 크리스찬, 윌리엄, ‘세계창조’, 로이 배튼하우스 편, 『아우구스티누스 연구 핸드북』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4), 372-403면
- Alt, K., “Die Überredung der Ananke zur Erklärung der sichtbaren Welt in Platons Timaios”, *Hermes* 106 (1978), 422-426면
- Arrighetti, A., “Plato between Myth, Poetry and History”, in: Jäkel, S. (ed.), *Power and Spirit* (Turku, 1993), 43-61면
- Baltes, M., “Gégonen (Platon. Tim. 28B7): Ist die Welt real entstanden oder nicht?”, in: Algra, K. A./van der Horst, P. W./Runia, D. T. (ed.), *Polyhistor: Studies in the History and*

- Historiography of Ancient Philosophy* (Leiden, 1996), 76-94면.
- Calame, C., *Mythe et Histoire dans l'Antiquité Grecque. La Création Symbolique d'une Colonie* (Nadir, 1996).
- Calvin, John, *Commentary on Genesis* (Edinburgh, 1847).
- Calvin, John, Institutes.
- Gill, M. L., "atter and Flux in Plato's *Timaeus*", *Phronesis* 32 (1987), 34-53면
- Hankins, J., "Plato in the Middle Ages", in: Strayer, J. R. (ed.), *Dictionary of the Middle Ages* vol. 9 (New York, 1987), 694-704면.
- Herter, H., "*Bewegung der Materie bei Platon*", *Rheinisches Museum für Philologie* 100 (1957), 327-347면
- Meldrum, M., "*Plato and the Arché Kakôn*", *Journal of Hellenic Studies* 70 (1950), 65-74면.
- Mittelstraß, J., *Die Rettung der Phänomene Ursprung und Geschichte eines antiken Forschungsprinzips* (Berlin, 1962).
- Mohr, R. D., *The Platonic Cosmology* (Leiden, 1985).
- Moncada, J., *Chora und Chronos. Logos und Ananke in der Elemententheorie von Platons *Timaios** (Wuppertal, 1994).
- Nikolaou, S.-M., *Die Atomlehre Demokrits und Platons *Timaios** (Stuttgart/Leipzig, 1998).
- Pradeau, J.-F., *Le Monde de la Politique* (Sankt Augustin, 1997).
- Rowe, C. J., *Plato* (Sussex, 1984).
- Runia, D. T., "*The Literary and Philosophical Status of *Timaeus'* Prooemium*", in: Calvo, T./Brisson, L. (ed.), *Interpreting the *Timaeus*-*Critias** (Sankt Augustin, 1997), 101-118면.
- Sharafat, S., *Elemente von Platons Anthropologie in den *Nomoi** (Frankfurt/M, 1997).
- Shorey, P., "*Recent Interpretations of the *Timaeus**", *Classical*

Philology 23 (1928), 343-362면.

Taran, L., "The Creation Myth in Plato's *Timæus*", in: Anton, J. P./Kustas, G. L. (ed.), *Essays in Ancient Greek Philosophy I* (Albany, 1971), 372-407면.

Vallejo, A., "No, It's Not a Fiction", in: Calvo, T./Brisson, L. (ed.), *Interpreting the Timæus-Critias* (Sankt Augustin, 1997), 141-148면.

Vlastos, G., "Disorderly Motion in the *Timæus*", in: Allen, R. E. (ed.), *Studies in Plato's Metaphysics* (London, 1965), 379-399면.

Vlastos, G., "The Role of Observation in Plato's Conception of Astronomy", in: Vlastos, G., *Studies in Greek Philosophy I* (Princeton, 1995), 223-246면.

Wieland, W., *Die aristotelische Physik* (Göttingen, 1961).

Abstract

The Creation of Time: Plato and Augustine

Lee, Kyung Jik³⁷⁾

Augustine does not regard the phrase, 'in the beginning', in Genesis as an expression of time, since time is created by God. If the phrase expressed time, it would undermine the eternity or unchangeability of God. Augustine seems to understand Plato's cosmogony in the *Timæus* literally. In his understanding, Plato's explanation of the creation of time is the creation of fixed stars which are the absolute measures of time. According to the scholars who argue insist on a literal interpretation of Platonic cosmogony, there is time before the creation of fixed stars in the form of duration which can be measured relatively only by the term 'before' and 'after'. Plato thinks that this form of time is chaotic. If so, the Demiurgic activity of the world creation is the activity in the time. But there is no constraint for the creation activity of the omnipotent God. This is not the case for the Demiurge who is constrained by the given chaos. God creates all things not from the given material but from nothing. God, therefore, does not give a form of time, namely the duration, but he creates time from nothing. So the time creation of God 'in the beginning' does not happen in the time.

37) Cheonan University, Christian Philosophy

It is followed from this that the six days during which God creates all things in the *Genesis* should be a mythical device which makes the readers to understand the creation easily which happens once for all. At this point, Augustine seems to follow the interpreters who understand the Demiurgic activity of creation as a metaphor. In a conclusion, the attempt of Augustine, to explain the world creation in the *Genesis* in relationship with Platonic cosmology, is an example of showing us both the usefulness and limit of the philosophy or science for the Christian faith.